

오순절 후 아홉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9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7월 25일 오전 10시

인도: 김재우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9 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 21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0 번 시편(Psalm) 139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요한복음 (John) 1:14-18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나는 아네 그의 계획”	찬양대
설 교 Sermon	“차이와 눈높이” (Perception And Perspective)	정재홍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98 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9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홍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위선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5:15, 롬 6:1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글개역 **요1:14**)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NIV **James 3: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25 (주일)	7/26 (월)	7/27 (화)	7/28 (수)	7/29 (목)	7/30 (금)	7/31 (토)
	삿8	삿9	삿10:1-11:11	삿11:12-40	삿12	삿13	삿14
본문	행12	행13	행14	행15	행16	행17	행18
	렘21	렘22	렘23	렘24	렘25	렘26	렘27
	막7	막8	막9	막10	막11	막12	막13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7/28수 오후7:30)	“여호와께 맡겨라” (잠 16:1-9) – 문일호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 (7/31토오전6:30)	“일어나 빛으로 나오라” (요 11:38-44) – 이성우 장로

지난 주일(7/18) 말씀

“신앙을 삶으로 (6) – 온전한 사람은” (약 3:1-12)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만일 말의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을 정도로, 말(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써, 얼마든지 죄를 짓기도 있고, 말의 이중성으로 인해,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생사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의 위험성을 인식했으니, (앞으로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침묵하는 것만이 최선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과 혀를 잘 통제하는 온전한 사람(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갈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혀를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2)둘째, 우리의 말과 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4:6)고 권면한 것입니다. 3)셋째,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결국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12:34-35)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의 앞에 열납”(시19:14)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